



한국 증시, 대주주 회피 vs 배당 수요 장세 전망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3,844.82	+0.59%	USD/KRW	1,274.80	-0.5%
NASDAQ*	10,497.86	+0.21%	달러 지수*	104.31	-0.11%
다우*	33,203.93	+0.53%	EUR/USD	1.06	-0.02%
VIX*	20.87	-5.01%	USD/CNH	6.97	-0.02%
러셀 2000*	1,760.93	+0.39%	USD/JPY	132.89	+0.01%
필라. 반도체*	2,535.49	+0.09%	채권시장		
다우 운송*	13,564.76	+1.07%	국고채 3년	3.670	+5.5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635	+8.4bp
Eurostoxx50*	3,817.01	-0.16%	미국 국채 2년	4.321	+0bp
MSCI 전세계 지수*	605.79	+0.23%	미국 국채 10년	3.747	+0bp
MSCI DM 지수*	2,605.19	+0.38%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954.78	-0.96%	WTI*	79.56	+2.67%
MSCI 한국 ETF*	57.04	+0.25%	금*	1804.2	+0.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73.9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1. 중국 리오프닝 관련 국내 테마주들의 주가 변화

주요 체크 사항 2. 대주주 요건 회피 목적의 개인 순매도 출현 여부

3. 연말 배당을 받기 위한 배당투자 성격의 자금 유입 가능성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전일 미국, 유럽 등 서방국가 증시의 휴장으로 인해 전반적인 매크로 상 뚜렷한 분위기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중국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주목할 요소가 존재. 26 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는 1 월 8 일부터 해외입국자들에 대한 격리 폐지(5일 시설 격리+3일 자가 격리), 입국 후 PCR 검사 폐지, 코로나에 대한 감염 등급 하향 등을 발표. 사실상 중국 정부가 전면적인 리오프닝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최근 단기적인 주가 놀림 현상이 발생했던 화장품, 레저, 여행 등 중국 소비 테마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 모멘텀을 재가동시킬 수 있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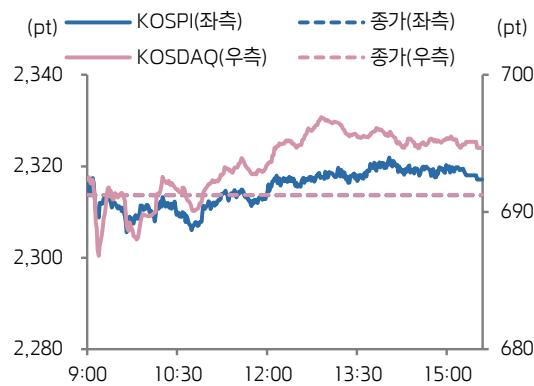
그러나 이제 시장참여자들은 리오프닝이 중국인들의 실제 소비로 얼마나 나타날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 12 월 이후 베이징, 상해, 선전 등 주요 대도시들에서 제로코로나 방역이 완화됐음에도, 일반적인 국가들의 리오프닝 초기와 마찬가지로 확진자수가 단기에 폭증하고 있는 상황(중국 당국 측에서는 향후 일평균 3,700만명 확진자 발생 전망). 이로 인해 중국인들의 외출을 자제하고 있으며, 양성판정 직원 증가로 인해 조업량을 줄이는 공장도 늘어나고 있는 등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실제 소비와 산업 경기의 반등 탄력이 크지 않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11 월 이후 중국 소비 테마주들에 대한 주가 상승 동력은 주로 리오프닝 기대감에서 기인했으며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매수는 유효하지만, 중장기적인 주가 모멘텀은 실질적인 중국 소비 증가가 이들의 실적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달려있을 전망.

전일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반등 효과, 금융투자를 중심으로한 기관의 순매수에도,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물량으로 추정되는 개인의 대규모 순매도(코스피 -6,140억원, 코스닥 -3,150억원) 여파로 소폭 상승한채로 마감(코스피 +0.2%, 코스닥 +0.5%). 금일에는 오전 8 시이후 재개되는 미국 선물시장 변화 속 전일에 이어 개인의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한 일시적인 매도 물량 증가 등으로 장중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일 전망.

개인들은 폐장일(29 일) 2 영업일 전까지 보유주식 시가평가액을 10 억원으로 낮추거나 지분율을 1%(코스피), 2%(코스닥) 낮춰 놓아야만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28~29 일 양일간 주가 상승으로 보유 시가평가액이 10 억원 이상으로 상승 시에는 대주주에 해당). 따라서, 금일에도 개인의 순매도가 유발하는 특정 종목들의 수급 상 하방 압력이 클 가능성이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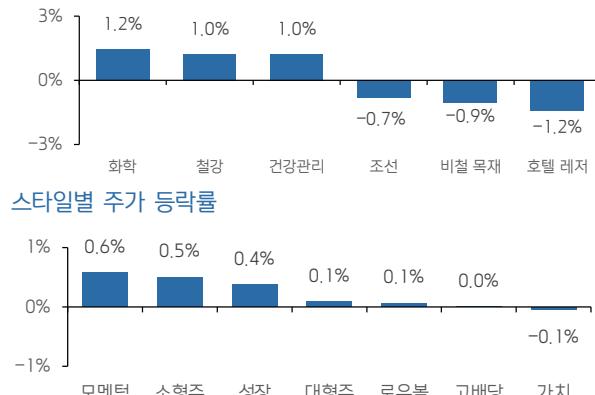
더 나아가, 대주주 과세 금액이 언론에서 이전에 알려졌던 대로 50 억 혹은 100 억으로 상향 되지 못한 점은 부담 요인인 것은 사실. 다만, 전일 장마감 후 기재부가 대주주 양도세 과세 범위를 “본인 및 가족들 포함 종목당 10 억”에서 “본인 10 억”으로 완화시키는 소득세법 시행 개정령을 연내 완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는 점은 완충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또한 금일은 내년도 배당금을 받기 위한 마지막 거래일이라는 점을 감안 시, 음식료 등 전통적인 고배당주를 중심으로 한 단기 배당투자 전략 성격의 매수세가 금일 국내 증시의 하단을 지지해 줄 것으로 예상.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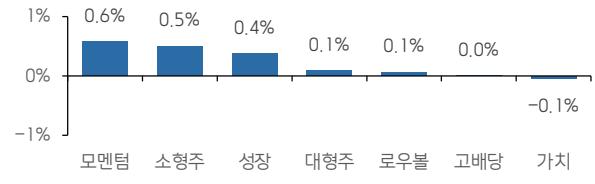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목,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지어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자리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짰습니다.